

우언 글쓰기의 언어관과 명실론

윤 주 필*

< 목 차 >

- I. 머리말
- II. 명실론과 유래와 우언글쓰기
- III. 명실론의 변용과 출처론
- IV. 한국에서의 몇 가지 사례
- V. 맺음말

Abstract

A Study on the Linguistic Viewpoint and the Logic between Name-and-Reality in Allegorical Writing

Yoon Ju-pil

Yü-yen(Chinese didactic allegory in the East-Asia) is a fictional narrative in which the theme is spoken in a roundabout way. Also in producing the allegorical mode certain logic and linguistic theory have to operate. In this thesis, I tried to study the logic between name and reality as the linguistic viewpoint of allegorical writing in the East-Asia. The logic, in the very beginning, derived from Confucius' logic of rectification of name. He holded up the ideal as the world in which the univesality could be coincided with the actuality. On the other side Chuangtzu suggested that names could be shifted to represent the reality; this was

* 단국대학교 교수

adequate to be the linguistic viewpoint of allegorical writing. He made the statement that "Names were guests of reality". After that, the logic between name-and-reality had been varied as one of name controlled by King, one of name's falsehood, and one between advance and retire etc. In Korea, the allegorical works began to be produced from late Medieval Age; starting from that time, the logic of name-and-reality be debated along with. It was first writer that was Lee Gyu-bo. I compared Lee Min-seng in latter period of Lee Dynasty with him. Also I investigated Lew Mong-in, Hong Dae-yong, and Park Ji-won's characteristic viewpoint of language through the logic of name and reality; and investigated the <Names are Guests of Reality>, <Preface of Dream-in-NamGa> as allegorical works that expressed the individualized linguistic viewpoint and the novel's theory of fiction

I. 머리말

우언 글쓰기에는 이야기를 통해 이치를 돌려 말하는 논리 전환의 능력이 들어 있다. 서사와 의론을 뒤섞는 혼합갈래로서 한문문명권의 고대부터 대단한 경지를 보여주었다. 이른바 제자백가의 사상가들이 철리적 내용을 우언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정명론적 글쓰기에 대립되는 가장 유력한 글쓰기 대안을 제시했다.

우언 글쓰기는 대개 특정한 정치적, 사상적 이념을 지향한다. 일종의 전략적 담론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명론을 지지하든 거부하든 일정한 논리적 관점과 문학적 태도를 견지한다.

본고는 우언의 발생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의 배경이 되는 언어관을 밝혀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한다. 공자에 의해 제창된 정명론을 포함하여 명·실(名實)의 관계 규정이 우언의 언어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요긴하다고 판단하고, 우언글쓰기의 현장에서 명실론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몇몇 사례를 살피

고자 한다.¹⁾

명실론의 시초와 전범은 아무래도 중국의 선진 시대의 사상가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승이든 대립이든 그에서 파생되는 사례도 한문문명권의 주변부에서는 또 하나의 전범이 될 터이므로 짝을 갖추어 살필 것이다.

한편 한문문명권 주변부의 우언은 훨씬 뒤늦게 시작되지만 그 자체로서 문명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에 따라 우언 글쓰기로서의 논리가 탐색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우언의 언어관이 담지하고 있는 문학사적 대응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차 동아시아 우언 비교론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 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명실론의 유래와 우언글쓰기

공자의 정명론(正名論)은 그의 언어 논리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²⁾ 각자의 명목과 분수를 바로 잡고 그로부터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그는 이름이 행위라는 실질과 호응함으로써 이름값을 지닌다고 보고 역으로 이름에다 가치 규정적인 도덕적 이상을 부가하고자 했다.³⁾

1) 윤주필(2001)은 우언 글쓰기의 원리와 그에 따른 수법과 작품의 적용 대상을 따졌다면, 본고는 언어관을 통해 우언 글쓰기의 이념과 태도를 문제삼는다. 또 이월영(2002)은 유몽인의 문학적 특징을 분석하면서 우언 글쓰기와 명실론을 연관시켜 논했다.

2) 《논어·자로》 #3, “子路曰衛君 待子而爲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乎 … 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 事不成則禮樂不興 禮樂不興則刑罰不中 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 故君子名之 必可言也 言之必可行也 君子於其言 無所苟而已矣”

3) 손영식(1989), 184-6쪽에서 정명론은 개인을 사회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역할의 집합으로 규정하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사랑의 원리이자 마음의 능력인, 덕목의 집합으로서의 인(仁)을 개발하여 이상 상태에 이르도록 요구하는 이론이라 보았다. 따라서 A=A라는 정명론으로 수렴되는 공자의 사상은 단순한 동어반복이 아니라 A는 A답게 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이상에 접근시키고자 하는 논리라 하였다.

공자 일행은 만남을 겪으면서 위나라에 도착했다. 다행스럽게도 위나라 집권자가 공자에게 우호적이어서 크게 등용하려고 했다. 이때 팔팔한 제자 자로가 기대감을 참지 못하고 성마르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제일 급선무가 무엇인가? 그러나 이때 위나라 정세는 자못 복잡했다. 전대의 임금 위영공 탓이기는 하지만, 그의 아들과 손자는 정권 다툼으로 골육상쟁을 불사했기 때문이다. 괴외(蒯賈)와 첩(輒)이 그들이다. 괴외는 위영공에게 쫓겨나가 나라밖에서 환국을 꾀했고, 첩은 할아버지의 실정 탓에 임금이 되어서는 아버지의 복권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같은 위기 상황의 해법으로 공자는 ‘정명’을 제시했다.⁴⁾

‘내가 누구다’라고 멋멋이 말하려면 ‘누구답다’고 하는 그럴 만한 언행이 뒤따라야 한다. 언어 논리적으로 보자면, [명₁-언₁-행₁, 명₂-언₂-행₂, ... 명_n-언_n-행_n]의 수많은 개념 규정이 1대1로 실체와 연결되고 그것들은 전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명’은 개념과 실체를 일치시키기 위한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이름에 실질을 부여하고 실질을 이름의 속성으로 삼는 명실상수(名實相須)의 입장에 놓인 가명론(可名論)이라 할 수 있다.⁵⁾

이에 비해 도가의 글쓰기는 사뭇 개방적인 특성을 띠고 또 다른 전통을 마련했다. 《노자》 같은 책은 첫 구절부터 도(道)나 이름(名)의 규정성을 부정했다. 즉, 가도(可道), 가명(可名)이 사물의 궁극적 표지가 될 수 없고 ‘이름 없음’이 ‘이름 있음’에 비해 더 근원적인 것으로 설정했다.⁶⁾ 그러므로 책 전체에

4) 주자의 《논어집주》 해당 대목의 ‘胡氏曰’ 총평에서 상세하게 밝혔다.

5) 《논어집주》 해당 대목에서 “程子曰：〈名實相須，一事苟，則其餘皆苟矣。〉”라고 했다. 加地伸行(198: 55~56)에서 공자의 정명론은 서양철학사의 보편논쟁에 비추어 볼 때, 명에 의해 표현되는 개념이 실재한다고 인정하는 實在概念論, 즉 실념론(realism)의 입장이라고 했다.

6) 《노자》 1장, “道可道非常道，名可名非常名。無名天地之始，有名萬物之母。” 최진석(2002: 20~30)에서 후반부를 “없음으로 천지의 시작이라 이름하고 있음으로 만물의 어머니라 이름한다.”고 풀었다. 이는 ‘無名’ ‘有名’을 대립되는 개념어로 보는 전통적 견해를 비판한 해석이다. 노자는 아직까지 이름에 대한 인식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는 단계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고는 《노자》가 공자류의 정명론이 전제하

서 부정 진술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논어》의 긍정 진술 위주와 대조를 이루고, 글쓰기 차원에서 부정의 논리를 발견했다는 의의를 지닌다.⁷⁾

노자는 자신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도’의 이름에 대해서조차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것은 ‘불어난 이름’이라는 뜻의 ‘자’(字)일 뿐이요, 역지로 이름하여 여러 가지로 돌려 말하는 가운데 하나라는 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흔히 이 세상의 큰 것으로 사람의 으뜸인 ‘왕’(王)을 말하지만 그것은 땅을, 땅은 하늘을, 하늘을 도를 본받고, 도는 무엇으로 규정되지 않는 ‘스스로 그러함’(自然)을 본받는다 고 단정지었다.⁸⁾ 노자는 요순으로 대표되는 선왕의 ‘천도’(天道) 개념을 부정하고 ‘천도무친’(天道無親)을 말하며, 문명의 전범을 제거하는 대신 ‘도법자연’(道法自然)을 주장한다.⁹⁾

노자는 공자가 생각하는 명분이 이상화되면 될수록 실상과 어긋난다는 점을 발견했다. 오히려 대립적 가치의 공존이 실제적이라고 파악했다. 몸이 있으면 환란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큰 거짓이 있고, 인의를 강조하면 대도의 폐함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자의 생각은 현실적 대결 상황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관점은 아니었다. 단순화 하자면 무명(無名)=상명(常名)은 곧 명(名)의 부정이자 ‘無=常’을 의미하며, 대립, 변화, 발전이 없는 정적 상태만이 순환, 변화, 혼란의 동적 상황을 치유하는 근원적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분명 소극적 세계관이며 역사 발전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태도임에 틀림없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자는 소박하나마 개성적인 정치 이념을 분명하게 지향

고 있는 可名의 개념을 부정했다는 점을 수용하면서, 노자가 개념 규정 이전의 근원성을 강조하는 ‘무명론’의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본다.

7) 우노세이이찌 편(1986) 201-8쪽 참조.

8) 《노자》 25장, “有物混成, 先天地生, 寂兮寥兮, 獨立不改, 周行而不殆, 可以爲天下母, 吾不知其名, 字之曰道, 強爲之名曰大, 大曰逝, 逝曰遠, 遠曰反, 故道大, 天大, 地大, 王亦大, 域中有四大, 而王居其一焉,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9) 侯外廬 외(1957) 257-9쪽 참조.

10) 侯外廬 외, 260쪽 참조.

하고 있었다. 고대말기라는 문명 혼란기에 개인의 문제 상황과 집단의 이념적 횡포를 실상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기존의 통념과 전범을 공략하는 언어 논리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선구적 의의를 지닌다. 이것은 시적 표현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장자》 같은 책에서는 더욱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고 도가 글쓰기의 전통을 확고하게 마련했다.

장자는 〈소요유〉 편에서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양보하려다 실패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막고야 산에 산다는 신인의 이야기를 이었다. 천하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것이지만 세상 너머에 이름으로 규정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내용의 우언을 꾸며냈다.

요임금이 허유의 존재로 인해 천하가 다스려졌음을 알고 자신이 무력함을 호소하며 천하를 바치고자 간청했다. 허유는 거절하면서, “천하가 그대 힘으로 이미 다스려졌는데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이름을 위하는 것이요, 이름이란 것은 실상의 손님이니 손님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¹¹⁾

노자는 궁극적 실상이라 할 ‘도’(道)마저도 그 이름이 임시적인 것이라 보았다. 장자는 그를 두고 ‘손님’으로 표현했다. 사물의 실상은 늘 가변적이며 그래서 불가측적이고 신묘하므로 언어적 규정은 손님처럼 갈마들 뿐이다. 실에 대해 명이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말하자면 [명₁-실, 명₂-실, … 명_n-실]와 같은 연관 속에서 이름은 다층화되고 간접화된다.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같은 주제를 신인(神人)의 존재를 통해 변주했다. 물론 이 또한 정면적인 언급은 아니다. 이름이나 말로는 실상을 표현할 수 없기에 신인은 불에도 안 타고 물에도 안 빠진다는 우회적 담론을 필요한 대로 끌어다 썼다.

그렇다면 그 근원적 존재는 무엇인가? 노자는 ‘무명’의 ‘자연’으로 말했다면, 장자는 엉뚱한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다. 마치 〈우언편〉의 언설대로 치언(扞

11) 陳鼓應, 《莊子今註今譯》, 〈逍遙遊〉 #2, “堯讓天下於許由, 曰: 〈日月出矣, 而燭不息, 其於光也, 不亦難乎! … 而我猶尸之, 吾自視缺然. 請致天下.〉 ~ 堯治天下之民, 平海內之政, 往見四子邈姑射之山, 汾水之陽, 窅然喪其天下焉.”

言)의 ‘돌려 마시는 술잔’인양 이 사람, 저 사람이 손님처럼 나타나 종작없이 말하고는 사라진다. 여러 이름의 주인공들이 장자의 입이 되어 한 가지로 무언가를 전달할 뿐이다. 이제 무명이 아니라 ‘다명’(多名)이 됐고,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장자 스스로 밝혔듯이 치언도 되고, 중언(重言)도 되고 우언(寓言)도 된다. 실상은 언어에 의해 규정될 수 없고 다만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 다면적 언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언어관으로부터 우언글쓰기가 창출됐다.¹²⁾

Ⅲ. 명실론의 변용과 출처론

1. 순자의 〈정명편〉과 열자의 〈양주편〉

《순자》는 명실 문제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전국시대의 여러 학파의 성과들을 흡수하거나 비판했다. 그는 주관적 사유, 판단, 추리 등이 어떻게 객관적 실재를 인식하게 되는가에 대해 전면적으로 고찰했다. 감각 기관의 의인화인 ‘천관’(天官)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물과 서로 다른 속성과 접촉하여 경험을 얻고 주관성을 형성하며, 마음의 의인화인 ‘천군’(天君)은 그 경험 재료를 가공하고 정리해서 객관성을 마련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 둘은 같은 대상에 대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동일한 사물에 대해 동일한 이름을 마련한다고 보았다. 주관과 객관의 변증적 정명론을 마련한 셈이다.¹³⁾

더구나 《순자》는 〈정명〉 편을 별도로 마련했다. 그는 ‘정명’을 매우 강조하면서 이름의 규정성을 긍정하고 명실상부의 원칙을 견지했다. 그리고 공(共: 類개념)과 별(別: 種개념)의 이름이 각각 보편으로 올라가는 방향과 개체사물로 내려가는 방향을 한없이 연쇄한다고 보고,¹⁴⁾ ‘이명난명’(以名亂名) ‘이실난

12) 加地伸行(1998: 64~65)는 장자가 공손룡과 함께 보편논쟁의 유명론(nominalism)에 해당된다고 보았지만, 개체사물을 넘어서는 존재론에 관심을 쏟았다는 단서를 붙였다.

13) 李德永, 〈荀子 認識論〉; 劉培育, 〈荀子 邏輯思想〉, 앞의 책 〈荀子〉 표제항 참조.

명’(以實亂名) ‘이명난실’(以名亂實) 등의 개념 혼효와 명실 상위의 착오를 비판했다.¹⁵⁾

순자는 유가의 입장에서 논리적 문제와 정치적, 윤리적 문제를 긴밀히 결합하려고 노력했다.¹⁶⁾ 그는 〈정명〉 편에서 ‘제명실변’(制名實辨)의 명제로 요약되는 논의를 폈다. 위정자의 권위, 전통문화에 대한 존숭에 근거하여 명실이 상부하고, 또 그래야만 질서가 유지된다는 논점이다. 또한 그렇게 정해진 명분은 부절이나 도량형과 같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자 공변된 언어라는 윤리사상도 엿볼 수 있다. 그는 보편언어의 실재성을 믿었고 그 아래로 무수한 층위의 개별 언어가 질서 있게 연결되어 만물의 분수를 규정한다고 보았다. 그 정점에 제왕과 법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름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적 이익으로 생각하면 명실론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명분은 명리(名利)가 되고 그와 연관되는 실체는 사공(事功)이나 실취(實取)의 문제가 된다. 고대말기라는 문명이행기의 혼란 속에서 어쩌면 이러한 방향의 논의가 더 절실했을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열자》에는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실려있다. 양주(楊朱)라는 이기주의자를 내세워 우언을 꾸몄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답이 된다.

양주가 노나라에 들려 맹손씨 집에 묵었다. 맹손씨가 먼저 묻고 양씨가 답을 해나갔다.

“사람이면 그만인데 어째서 이름을 일삼는가?” “이름을 일삼으면 부귀해진다.”

“무릇 이름을 위하는 자는 필시 청렴하고 청렴해서 가난하다. 이름 위하는 자는 필시 양보하고 양보해서 천하다.” “관중이 제나라 재상일 때 임금의 뜻에 합치시켜 패제후를 이룩했지만 그가 죽은 후 ‘관씨’라는 이름 뿐이었다. 전씨가 제나라 재상일 때 임금과는 반대로 해서 백성이 모두 귀의하여 제나라를 차지하고 자손들이 지금까지 향유하고 있다.”

14) 加地伸行(1998: 84) 참조.

15) 劉培育, 같은 곳 참조.

16)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의 여러 학파에서 장점을 취하면서도 명변가의 순수 논리학적 태도, 장자의 주관적 불가지론, 심지어 맹자의 선험적 도덕주의 같은 것을 비판했다.

“그렇다면 참 이름은 빈천하고 거짓 이름은 부귀하다는 말인가?” “참에는 이름이 없고 이름에는 참이 없다. 이름이란 거짓일 뿐이다. 옛날 요·순이 천하를 허유와 선권에게 양보했지만 천하를 잃지 않고 죽을 때까지 유지했으며 백이숙제는 고죽군의 자리를 양보해서 끝내 나라가 망하고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참과 거짓의 분별이 이처럼 분명한 것이다.”¹⁷⁾

이름은 실상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했다. 아니, 이름은 오히려 실상을 뒤바꾼다는 점을 지적했다. 명실론은 어느덧 정·오가 아닌 진·위의 문제로 바뀌어 논의되고 있다. 현실적 이득이 참이라면, ‘이름은 거짓’이 되어 그것을 가리우고 있다는 것이다.

인생 백년을 사는 이도 적은데, 그 중 어린 시절과 황혼 시절이 반을 차지하고, 한참 일할 나이에는 자신의 심신을 괴롭히는 일로 대부분을 허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름, 명예, 명분 같은 것 때문이 아닌가? 터럭 하나를 뽑아 세상을 위한다 손치더라도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하는가? 햇볕이 났을 때 건조더미를 말려야 하듯 세상은 즐겨야 하고 삶은 누려야 하지 않을까? 한문판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 뒷 이야기를 잇고 있다. 순자의 고심 참담한 모색을 바웃기라도 하듯 이야기를 빙빙 돌려 말하고 있다. 이 때 우언은 다소 엉뚱한 주제를 힘들이지 않고 전달하는 담론 전략으로서 만만치 않은 효과를 발휘한다.

2. <좌전>의 수도론과 맹자 및 유종원의 변용

순자와 열자는 명실론의 양극단을 보여준 셈이다. 이에 비해 맹자는 명분이 선행적 도덕 가치에 의해 정해진 것이고 또한 이상 정치에 이르는 가장 편하

17) 楊伯峻 撰, 《列子(新編諸子集成)》(北京: 中華書局, 1996) 〈楊朱 第七〉 #1, “楊朱遊於魯, 舍於孟氏. 孟氏問曰: “人而已矣, 奚以名為?” … “若(sic 若然), 實名貧, 僞名富; (sic 實名賤, 僞名貴).” 曰: “實無名, 名無實; 名者, 僞而已矣. 昔堯舜僞以天下讓許由·善卷, 而不失天下, 享祚百年. 伯夷·叔齊實以孤竹君讓, 而終亡其國, 餓死於首陽之山. 實僞之辯, 如此其省也.”

고 몇몇한(변하지 않는) 길이 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태도에는 명분이 권력자에 의해 정해지는 것도 아니요, 또한 오직 실리를 추구하느라 일을 하거나 이름을 내걸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비판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맹자에게 있어 명실론은 지식인의 거취와 처세 논리로 변용된다. 《맹자》에는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맹자의 처세관을 두고 사제간에 문답을 하는 대목이 여러 차례 나온다. 이중 《좌전》에서 짤막한 에피소드를 인용하여 자신의 거취를 우회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을 거듭 사용했다. 수렵훈련에서 사냥꾼이 임금의 저를 부르는 것발이 잘못됐다고 해서 응하지 않다가 처형될 뻔했다는 내용이다.¹⁸⁾

맹자는 사냥꾼의 내면을 구덩이 빠질 것을 각오하는 지사, 머리가 잘릴 것을 잊지 않는 용사였다 빗대면서 공자가 어떤 점을 취하고 했는가를 설명하고자 했다.¹⁹⁾

사냥꾼의 관직은 [사냥꾼의 명목 - 부름의 표시 - 임금께 나감]의 과정을 통해서 실천된다. 이는 [명-언-실]의 일치를 주장한 것이라 할 때 공자의 정명론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명실론이 이제 맹자에 의해 지식인의 거취 문제라는 존재론적, 실천론적 주제로 변용된 것이다.

이같은 변용의 과정에서 맹자는 말물이꾼의 이야기를 삼화 우언식으로 끼어 넣었다. 궤우(詭遇)와 범치(範馳)라는 두 가지 말물이 방식에 따라 사냥 포획물이 많고 적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의리상 전혀 명·실 연결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우의를 담았다. 명리(名利)와 공과(功果)의 명실론을 부정한 것이다.

그 대신 의(義)와 예(禮)를 ‘부름의 표시’ 즉 명과 실의 정당한 연결고리로 삼았다. 누구라도 선협적으로 부여받은 인륜을 바탕으로 힘의 정치가 아닌 덕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거쳐야 할 공변된 규칙이 필요하다고 본

18) 《春秋左傳》, 〈昭, 二十年 十二月〉 “齊侯田于沛, 招虞人以弓, 不進. 公使執之. 辭曰: ‘昔我先君之田也, 旃以招大夫, 弓以招士, 皮冠以招虞人. 臣不見皮冠, 故不敢進.’ 乃舍之. 仲尼曰: ‘守道不如守官.’ 君子體之.”

19) 〈滕文公章句下〉 #1, “陳代曰: ‘不見諸侯, 宜若小然’; 〈萬章章句下〉 #7, “萬章曰: ‘敢問不見諸侯, 何義也?’” 대목 참조..

것이다. 이러할 때 명분은 실천을 위한 예비 과정이고 실천은 명분의 구체화 과정이 된다.

그러나 맹자는 《좌전》에서 공자가 사냥꾼의 행위를 두고 ‘수도불여수관’(守道不如守官)이라는 짧은 논평을 가했던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종원은 공자의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전하는 사람의 잘못이라는 내용의 논설을 폈다. 가장 핵심적인 대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직이란 것은 도의 그릇이다. 그것을 떠나면 잘못이거니와 관직을 지키면서 도를 잃거나 도를 지키면서 관직을 놓치는 일은 없었다.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기준과 분수를 지키되 도를 잃음이 없는 경우는 지극한 조화이다. … 이 때문에 위에 있어 뽐내지 않고 아래 있어 주눅들지 않는다; 화살 만드는 자 불인함을 행하지 않고 방패 만드는 자 인을 행하지 않는다. 자기 직임을 전사하고 국면을 맡아 서로간에 전체 공정을 완전하게 만든다. 지위를 바꾸어 처해도 각기 그 분수를 편안히 여겨 천하에 도를 이룬다. 한편 저 관직은 도를 행하는 수단인데 ‘도를 지키기 관직을 지킴만 못하다.’고 하면 대개 그 근본을 다치게 되거니와 관직을 지키면서 도를 잃거나 도를 지키면서 관직을 잃는 경우는 없었다.²⁰⁾

관직과 도를 명·실의 개념으로 치환해 볼 때 그들은 명실상수(名實相須)의 관계이어야 함을 글의 서두와 말미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주의를 요한다. 상하의 관계가 수직적 질서로 규정되지 않고 각자 직임은 부분의 직분으로만 존재하며 서로를 기다려 전체를 이룰 뿐이다.

20) 柳宗元, <守道論>, 《(五百家註)柳先生集》, 《文淵閣四庫全書》 1076집, “官也者道之器也, 離之非也; 未有守官而失道, 守道而失官之事者. …故自天子, 至于庶民, 咸守其經分, 而無有失道者, 和之至也. …古者, 居其位思死, 其官可易而失之哉? …然則, 失其道而居其官者, 古之人不與也. 是故, 在上不爲抗, 在下不爲損; 矢人者不爲不仁, 函人者不爲仁. 率其職, 司其局, 交相致以全其工也. 易位而處, 各安其分, 而道達於天下也. 且夫官所以行道也, 而曰守道不如守官, 蓋亦喪其本矣; 未有守官而失道, 守道而失官之事者也.”

또한 창과 방패를 만드는 자도 ‘모순’의 관계에 빠지지 않는다. 창을 만든다고 불인함을 저지르는 것도, 방패를 만든다고 인자함을 행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의 직분은 연대하여 종합적 실천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자의 발언은 수단만을 강조하는 격이어서 그 ‘서로를 기다리는 관계’를 왜곡시킨다고 보았다. 이는 근본만을 강조하여 구체성을 저버리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공자의 발언임을 부정하고 무언가 잘못 전해졌다고 유종원은 판단했던 것이다.

IV. 한국에서의 몇 가지 사례

1. 이규보의 <반수도론>과 이민성의 <수도불여수관론>

이규보의 <반유자후수도론>은 흔히 이규보의 사상을 잘 보여준 의문문으로 학계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으나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²¹⁾ 실제 문면은 몇 겹의 선행 텍스트를 내포하고 있고 작자는 그 각각의 층위에 대해 비평적 거리를 유지하며 다원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선 제목을 통해 볼 때 유종원의 <수도론>이 그 첫 층위이다. 그러나 유종원의 논설도 또한 반모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최초 선행 텍스트는 《좌전》 기사와 그것에 붙여진 공자의 평결이다. 맹자에 의해서도 이 이야기가 원용되고 있음은 앞에서 살폈다.²²⁾

이규보는 먼저 유종원의 논의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용했다.

21) 조동일(1996: 116-7); (1998: 94) 참조. 한편 박희병(1998: 136)은 조동일이 유종원의 말을 이규보의 견해로 오해했다고 지적했으나 위 글들에서 수정이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이 작품이 선행 전범을 활용하면서 다층의 反모방적 글쓰기를 수행했다고 보고, 우언의 명실 논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22) 《左氏會箋》(漢文大系本) 권20 장31; 《孟子》〈滕文公下〉 #1 및 〈萬章下〉 #7 참조.

물건이 도의 기준이고, 관직이 도의 그릇이어서 도를 지키면서 관직을 놓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도를 지키미 관직을 지킴보다 못하다고 하면 대개 근본을 다치게 된다.²³⁾

이같은 견해에 대해 이규보는 일단 동의했다. 그러나 유종원의 논의는 높은 지혜의 소유자에게만 해당될 뿐이고, 공자가 보통 사람을 위해 일반론을 편 진의와는 어긋났다고 반론을 폈다.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규보가 유종원의 논의를 충실하게 요약했는지의 여부이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유종원은 “관직을 지키면서 도를 놓치는 경우”와 “도를 지키면서 관직을 놓치는 경우”를 연결시켜 명제화했고 그 점을 수미일관 강조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진정으로 관직을 지킨다면 도를 놓칠 수도, 또 참으로 도를 지킨다면 관직을 놓칠 수도 없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다만 현상적으로 도는 놓치면서 관직만을 부여잡거나, 반대로 관직은 내팽거친 채 도를 묵수하는 사람이 생겨나기에 논의가 복잡해졌다.

이규보는 짐짓 보통 사람을 빌미 삼아 “도를 지킨다 하여 관직 지킴을 소홀히하는 경우”를 비판하면서 논의를 풀어나갔다. 말하자면 [관직(名)-물건(言)-도(行)]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개체 사물로부터 일반 추상으로 나아가야지 그 역의 방향은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보았다. 공자의 발언도 똑같이 도를 지키자는 것이지만 다만 선후를 가려야 한다는 말로 풀이했다.²⁴⁾ 이규보는 결국 유종원이 주장한 ‘명실 상수’의 관계를 수용하면서도 ‘명실의 선후 차서’를 부

23) 원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李奎報, 《李相國集》 권22 장1, 《한국문집총간》 1집 516면, 〈柳子厚著論曰: “守道不如守官, 是非聖人之言, 傳之者誤也. 皮冠者, 虞人之物也. 物者, 道之準也. 守其物, 由其準, 而後其道存焉, 苟舍之, 是失道也. 官者, 道之器也, 未有守道而失官者, 而曰守道不如守官, 蓋亦傷其本矣.”〉

24) 해당 문면은 다음과 같다: 〈若中下人者, 未知道之爲守官之本, 妄求道之所在, 自以爲能守其道, 而忽於守官, 因以隳職傷局, 則不旋踵蹈其禍矣, 官可守歟? 是喻人而陷於不義, 烏在其爲聖人之言耶? 苟以爲守道不如守官, 而努力恪謹, 能守其官, 則亦庶幾於道矣, 道豈不存乎? 聖人言守道不如守官, 是乃言守道者也, 但言有先後耳, 其意未始不同矣.〉

여하고자 했다. 관직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식인의 도리를 실현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관직의 명분적 가치를 앞세웠다 할 수 있다. 추상적 이념보다 실제의 직분이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 요긴함을 주장한 것이다.

이규보의 논의는 한국의 한문학 작가들이 중세후기에 적합한 명실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의 출발선상에 놓이는 작품이다. 귀족으로서의 혈통적 기득권이 별로 없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지식인으로서 명분과 실천 논리를 구축하는 데 명실론은 매우 중요한 준거틀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이상적 도리에 비해 도구적 개념을 강조한 것은 문학의 구실을 다면적으로 설정하고, 문제를 가상적으로 토의하려는 태도와도 연결된다. 이것은 이규보의 많은 작품이 우연적 색채를 농후하게 지니는 까닭이기도 하다.²⁵⁾

유종원의 <수도론>은 17세기 초엽에 이민성에 의해 다시금 논의된다. 그는 <좌전>의 원 텍스트와 함께 유종원의 논지를 요약하면서, 그의 말이 옳기는 하지만 공자의 본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공자의 언급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 판단한 유종원의 견해를 부정한 것이다. 그는 단적으로 공자의 의중을 두고, “도(道)라고 하는 것은 말미암게 할 수는 있어도 알게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추론했다.

말하자면 사냥꾼이 자신을 부르는 물건인 가죽모자를 통해 규칙을 지키고 그것을 감히 벗어나지 않았으니 도가 거기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이 사대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선비는 선비대로 대부는 대부대로 자기 분수를 편안히 여기고 자기 규칙을 지켜 감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도가 그로 말미암아 행해진다고 역설했다. 저 사냥꾼은 도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그처럼 할 줄 알았기에 사대부들이 자기 분수를 지켜 도를 지키도록 공자가 그처럼 빗대어 발언했다는 것이다.²⁶⁾

25) 예컨대 <驅詩魔文>을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 윤주필(2002a: 115~118) 참조.

26) 李民成, <守道不如守官論>, 《敬亭集》 권13 장20, 《한국문집총간》 76집, 390~391면. “聖人之意, 若曰: ‘道也者, 可使由之, 不可使知之.’ … 夫皮冠者虞人之物也, 物有其則. 有其物, 守其則, 而不敢過焉, 道固於是而存焉. 推而上之, 士而不失其士, 大夫而不失其大夫, 各安其分, 各守其則, 而

‘관직’은 직임의 한계를 설정하고 분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 이해하고 있음을 위 글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관인사회의 위계가 분명해야 하며 그러할 때 도리가 그 질서의 사다리 안에서 저절로 실현된다고 하는 당위론과 연결될 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자가 애초 주장했던 바, 정명론으로 명실론을 환원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논의가 하필 17세기 초엽에 다시 이루어진 데는 그럴 만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문인관료 사회에서 지식인의 거취를 두고 뜨겁게 논쟁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 시기였다. 사림파들의 정계 진출이 완료되면서 이제 지식인사회는 당대 현실에 대한 평가와 거취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예컨대 ‘명색(名)’과 ‘속마음’(心/道)과 ‘자취’(迹/行) 등의 개념을 동원해서 인물의 거취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따지는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 그러한 논의의 결정적 차이점은 당대를 치세로 보는가 난세로 보는가 혹은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보는가에 달려 있었다.²⁷⁾

또한 명실론에 관점에서도 그들의 논의는 서로 다르게 이해된다. 즉 치세를 주장하는 논자는 설사 명실이 어긋나더라도 그것은 예외적 상황이며 속마음과 도리에 대한 믿음으로 정통성이 확보된다고 보았다. 난세로 판단하는 논자는 명실이 어긋나는 세상에서 피해자들은 역설적 방법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갈림길의 위기상황을 강조하는 논자는 명과 실이 왜곡되어 있으므로 되도록 정통의 방법을 통해 도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²⁸⁾

이 중에서 세 번째 입장은 특히 정명론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은 순리적인 방법을 따르다 부정적 가치를 초래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설사 명분을 바르게 추구하다가 지위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처사형 인물로서 성현의 도리와 자기의 학문을 즐기며 살 수 있다. 또 역설적 방법으

不敢過焉，則孰不曰官者道之所由行耶？… 彼處人非知道者，而能由其物守其則，不敢過焉，聖人幸之，故曰：‘守道不如守官。’激而進之，將使夫爲大夫士者，居其官思其則，莫或過焉，而蹈乎道爾。”

27) 윤주필(1999: 207~215) 참조.

28) 윤주필(1999: 190) 참조.

로 긍정적 가치를 성취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벼슬을 탐내며 탄 마음을 가지고 조정을 기웃거리는 이단이 있을 뿐이다.

이민성의 명실관은 바로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이를 문학관에 적용시켜 볼 때 그가 <최척전>을 두고 험담을 한 것은 우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물론 강홍립의 종사관으로 후금과의 전투에 참여했던 자신의 아우 이민환이 부정적으로 서술됐기에²⁹⁾ 작품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허구적 기술로 인한 피해자의 불명예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지만,³⁰⁾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명실관에 비추어 보건대 그가 소설적 허구성의 다면적 층위를 흔쾌히 인정하기는 곤란했을 것이다.

2. 유몽인과 홍대용과 박지원의 경우

유몽인은 이민성과 비슷한 시기의 인물이지만 명실론을 좀더 유연하게 이해하고자 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실상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론을 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문장론의 전개, 민간우언의 수용, 야담의 편찬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³¹⁾

예컨대 조카 유활에게 문장론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우언 두 편을 소개했다. 길가는 사람의 공론에 따라 내기를 하다고 이가 쥐보다 더 큰놈으로 취급됐다는 내용, 미처 모르고 아이들이 범을 때려 잡았다가 어른들이 일러주자

29) 박희병(1995: 237), “喬遊擊領敗卒十餘人, 投入鮮營, 乞着鮮衣, 元帥姜弘立給其餘衣, 而將免死焉, 從事官李民寔, 懼其見忤於奴酋, 還奪其服, 執送賊陣, 而陟本鮮人, 遑亂之中, 匿編行間, 獨漏免殺。”

30) 양승민(2000: 106) 참조. 李民成, 〈題崔陟傳〉, 《敬亭集》 권4 장4, “陟云喬標下, 與他走回別. 厥跡既新異, 宜播遠耳目. 奚暇此傳出, 始獲其顛末. 況聞帶方郡, 原無還人物.” 이 시는 李民寔, 〈建州聞見錄〉 〈越江後追錄〉, 《紫巖集》 권6의 부록으로 첨부했는데, 제목 밑의 협주에서 “是商山一士人自稱作崔陟傳, 插入誣公之說, 故敬亭公作此詩以辨之.”라 밝혔다.

31) 이월영(2002)은 유몽인 문학의 특징을 장자적 명실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입론을 세웠다.

깜짝 놀라 모두 도망했다는 내용이다. 실상에는 어둡고 공론이나 명색에 주눅이 드는 사태를 풍자하고자 했다. 그리고 죽은 유종원의 문장을 칭찬하기보다는 지금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유씨³²⁾의 문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능쳤다.³³⁾

이같은 관점에 입각해 그는 다시 언어의 생명력까지 문제삼기도 했다. 금강산에서 사귀어 승려에게 주는 「증서」(贈序)에서 그는 수수께끼같은 선문답을 두 편 소개했다. 요컨대 천기를 감추지 않고 털어내는 것은 '죽은 말'(死語)이요, 천기를 살려 간직하고 있는 것은 '살아 있는 말'(活語)라는 것이다. 선문답도 이와 같아서 말에다 자신의 실제 경험을 실어낼 수 있으면 '산 공부'이고, 공연히 명성이나 선입견에 밀려서 지레짐작으로 넘겨짚고 망상만을 키우면 '죽은 공부'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죽은 문장을 가지고 괴롭게 익히면서 학문이니 문장이니 할 게 못된다고 역설했다.³⁴⁾

그러나 이상의 몇 가지 예는 단순히 문장론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명분의 규정력에 의지하는 실상이란 실제로는 기존통념이 빚어낸 허상이요, 사태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그는 당대 지식인사회에서 통렬하게 깨달았다고 여겨진다. 죽음을 불러온 그의 독특한 출처관도 당대의 통념과 명분을 거부하는 '반상'(反常)의 논리였다.³⁵⁾ 오직 개별적인 삶의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들의 내면을 표현하는 문학을 추구할 뿐이었다. 따라서 그의 문학 작품에는 명분과 실질이 어긋나고 그것의 이면적 관계를 꼬집는 내용이 많다. 그것을 풍자적 시각에서 가상적으로 꾸밀 때 걸출한 우언 작품이 탄생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호정문>이다.³⁶⁾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두 주인공의 만남을 허자(虛子)의 입을 통해 '허

32) 자기 자신을 가리킴.

33) 신익철(1998: 148~150) 참조. 이월영(2002: 327)은 이 글을 유가적 명분주의를 풍자한 우언으로 해석하고 작가의 독특한 명실론을 드러냈다고 보았다.

34) 신익철(1998: 153) 참조.

35) 신익철(1998: 150) 참조.

36) 윤주필(1998: 103~106)에서 <虎葬文>의 우언적 성격에 대해 한 차례 살피고, 뒤에서는 여타 작품과 함께 우언계소설의 특징을 추출했다.

허실실'의 논리로 설명했다. 이는 가상적 글쓰기로서의 우언의 언어관을 드러내는 좋은 실마리가 된다.

나는 '허'로 이름하니 천하의 '실'을 따지려는 것이고 저는 '실'이라 이름하니 천하의 '허'를 깨뜨리려는 것이리라. 허허실실은 진실된 묘리이니 내가 장차 그의 말을 들어보리라.³⁷⁾

허는 실을 지향하고, 실은 허를 깨뜨리기 위함이라 했으니 상호 대대(待對)적이다. 이를 두고 허허실실의 묘리라고 했다. 허허실실이란 사물의 가치가 어느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말한다. 또는 한 의학용어로서 강점과 약점이 조화를 이루다가 균형이 깨지면 강점은 너무 강하게 약점은 너무 약하게 편중되는 것을 일컫기도 한다. 또는 병법에서 상대방의 예측을 역이용하여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어쨌거나 허허실실의 특징은 그 허와 실이 균형을 이루고 상보적인 작용을 할 때 긍정적 가치가 산출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 가치가 도출된다는 데 있다.

허자는 홍대용의 30년 학문 결과를 요약적으로 본따 만들었지만 실용을 견인해내는 실천적 존재이다. 실용은 허자의 허위(虛偽)식을 깨뜨리고 실상을 깨우치는 이상적인 존재로 부각되지만 허자의 구도자적 모색과정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이름은 비록 나뉘어 있으나 실상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름이 똑바로 정해짐으로써 실상을 규정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의 다면성을 포착하기 위해 이름을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는 언어관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우언은 허와 실의 상보적 관계로 짜여져 있다는 일반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가상적 설정이 작품 내부와 실상을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실상에 대한 다면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동아시아 한문학권의 소설적 허구론은 바로 이같은 논의로부터 발전되어 나왔다.

박지원은 우언 글쓰기를 누구보다도 개성적으로 활용했던 작가이다. 그중에서도 우언의 반모방적 원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녔다. 예컨대 <초정집서>

37) 《湛軒集》 권4 장16a, “虛子曰：‘我號以虛，將以稽天下之實；彼號以實，將以破天下之虛。虛虛實實，妙道之眞，吾將聞其說。’”

에서 언급했던 ‘법고’ ‘창신’에 대한 논의가 그의 문제 의식을 여실히 보여준다.³⁸⁾

한편 《주역》이나 《춘추》를 글쓰기 측면에서 재평가하면서 비평적으로 접근한 예도 발견된다. 정확히 작자가 박지원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 불분명한 <열하일기서>가 그것이다. 《열하일기》의 글쓰기를 《장자》와 대비하면서 우언(寓言)과 외전(外傳)의 두가지 글쓰기 방식을 언급했다.

말을 만들어 주장을 세우되 신명의 일과 통하고 사물의 규칙을 궁구하는 것은 《주역》과 《춘추》 만한 게 없다. 《역》은 은미하되 《춘추》는 드러낸다. 은미함은 담리(談理)를 위주로 하되 발전해서 우언이 된다. 드러냄은 기사(記事)를 위주로 하되 변화하여 외전(外傳)이 된다. 저술가에게는 이 두 길이 있다.³⁹⁾

이 대목은 《주역》과 《춘추》가 글쓰기 방식의 양대 전범임을 말하고 있다. 《주역》은 보편적 이치를 전제로 하여 세부 상황을 묘사한다. 문면에는 동식물을 포함한 각종 사물과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것들은 암시적, 예언적 내용을 띤 채 《주역》 전체의 논리전환의 체계를 통해 이면적 의미를 배분받는다. 따라서 이는 어떤 커다란 주제를 이면에 감추어 두고 문면에 구체적 사물을 허구화하여 대응시키는 우언 글쓰기의 논리적 모델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반면 《춘추》는 역사적 사실을 선택하고 또 개별의 사실을 연결시키면서 전체적 의미를 찾아 나간다. 어떤 이치를 미리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사실의 관련을 통해 그 의미를 형성해 나간다. 문인들이 일상 속에 묻혀 있는 개인적 삶의 파편으로부터 깊은 뜻을 찾아내고자 하는 외전(外傳)의 전범이 될 만한 글쓰기 방식이다.⁴⁰⁾ 결국 암시와 명시, 가설과 직설의 양편에 그

38) 《연암집》 권1 〈楚亭集序〉, “噫! 法古者病泥跡, 剏新者患不經, 苟能法古而知變, 剏新而能典, 今之文猶古之文也.”

39) 이가원(1985: 513), “立言設教, 通神明之故, 窮事物之則者, 莫尙乎易春秋. 易微而春秋顯, 微主談理, 流而爲寓言, 顯主記事, 變而爲外傳. 著書家, 有此二途.”

40) 이지호(1996)에서는 주역 글쓰기를 ‘기존 패턴의 정당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속적 글쓰기’로, 춘추 글쓰기를 ‘새로운 패턴의 창안’을 목적으로

두 글쓰기 방식이 존재하되 실제 《열하일기》는 그 둘을 조화롭게 결합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3. 우언 작품으로 나타난 명실론: <명자실지빈> <남가록서>

호를 강촌(江村)이라 하는 작가의 작품인 <명자실지빈>은 우언의 언어관을 살피기에 여러모로 적절한 작품이다.⁴¹⁾ 《장자》의 명실론을 반(反)모방의 수법으로 끌어들이어 전혀 다른 풍격의 우언으로 꾸며낸 수작이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주인옹과 4명의 손님이 찾아와 ‘명실지론’을 토의하고 천군에게 보고하여 칭찬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주인옹의 이름은 수신(守信)으로 인산(仁山) 아래 지수(智水) 위에 살지만 명리의 손님들을 만나지 않아 거의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다. 그런데 인백(仁伯), 의중(義仲), 예숙(禮叔), 지경(智卿)이라는 네 손님이 천군(天君)의 명령을 받고 주인옹을 찾아왔다.

주인옹은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양보했다는 《장자》의 우언 대목을 토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늘이 성인을 내어 천하를 구제한 실상이 있다면 어찌 이름이 손님이라고 두려워하여 받지 않겠는가? 허유는 이런 말로 성인보다 높은 채웠지만 그 진짜 모습은 밖으로 천하를 양보했다는 이름을 구하면서 그 실상을 기만한 것이다. 어찌 이름이 실상의 손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았겠는가? 이 때문에 요순은 거룩함의 실상이 있지만 백성이 이름짓지 못하고, 허유는 천하를 사양했다는 이름은 있지만 거룩함의 실상은 없는 것이다.”⁴²⁾

하는 ‘결합적 글쓰기’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주역》 또는 우언에는 모방, 대비뿐만 아니라 가상의 원리가 작용하여 의미의 종속뿐만 아니라 의미의 배가, 변환도 가능하다. 윤주필(2001: 14~18) 참조.

41) 강전섭교수 소장본, 《江村遺稿鈔寫集》에 수록. 그 소개는 윤주필(2002b: 195;209) 참조.

42) 윤주필(2002b: 210) 참조.

놀랍게도 주인옹은 예의 ‘명자실지빈’의 개념을 전적으로 수긍했다. 다만 허유는 ‘유명무실’이요, 요순은 ‘유실무명’이라 해서 앞장에서 살폈던 <양주>(열자)가 내린 요순에 대한 평가와 상반된다. 오직 실이 있어야 명도 생겨난다는 것이고, 실사 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이야말로 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인옹은 흔히 천군소설에서 주일무적(主一無適)의 특성을 지닌 경(敬)의 의인화이며, 천군의 나라에 발생한 문제적 상황을 해결해 주는 실천자 내지 비판자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작품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작중 역할은 대동소이하다.⁴³⁾ 그런데 이 작품에서 주인옹은 ‘믿음’을 의인화한 가상적 존재이다. 인·의·예·지의 네 신화와 천군은 그의 발언을 깨우침의 계기로 삼고, 실상을 지키면서 이름은 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중세적 명분이 깨어져 가는 시대의 ‘공적인 언어’(名)를 불신하고 그 대신에 내면적 실천의 ‘개별화된 언어’(實)를 추구해가는 모습의 언어관을 표시했다고 여겨진다. 천군소설이 관념화된 근대이행기의 퇴행적 징후를 반영했다기 보다는 변화한 심성론에 실천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시간적 구체성을 띤 수양론을 추구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면,⁴⁴⁾ 이 작품은 그러한 심성론과 수양론이 개별적인 언어와 개성적 실천에 의해 성취됨을 주장했다고 해석된다.

<남가록>은 무명 작가에 의해 지어진 2권2책의 분장체 한문소설이다.⁴⁵⁾ 여기에는 최만성(崔晩成)의 서문이 붙어 있는데 명실론을 변용하여 일종의 소설 허구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펴서 주목된다. 객(客)은 칠성자(漆城子)에게 힐난조로 의문을 제기했다.

“글은 실상 기록을 귀하게 여긴다. 그렇다면 글은 실상의 손님이이다. 지금 자네가 수천만 마디를 종횡무진하여 가공으로 이야기해 나가지 않음이 없다. 그렇다

43) 여러 작품에서 太宰 敬, 惺惺翁, 主一翁, 惺翁, 敬夫 등으로 일컬어진다. 김광순(1980: 183), 허원기(2001: 125~126) 참조.

44) 허원기(2001: 139) 참조.

45) 조용호(2002)는 작품을 분석하여 학계에 처음 소개했다. 서강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면 빈 말의 실상 없음이 이보다 큰 게 어디 있겠는가? ... 향차 자네의 말은 그 실상도 없고 걸맞는 덕도 없음이라! 있는 게 없으니만 못하니 물이나 불에 던져 후인의 애매한 비방을 잠재움이 어땠겠는가?"⁴⁶⁾

‘문장은 실상의 손님’이라고 했지만 ‘사실 기술’이 곧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가공적 이야기’는 실상 없는 빈말일 뿐이다. 앞의 <명자실지빈>에서 제시한 명제와 비슷하기는 해도 정반대의 문학관을 피력하며 <남가록>의 작가를 공박했다. 그런데 칠성자는 무명의 작가이다.⁴⁷⁾ 무슨 지위나 그에 걸맞는 덕행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글의 말미에서 그는 거의 굶어죽을 지경으로 곤궁하다고 실토할 정도이다. 오직 작품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었다.

그는 모든 사물에는 저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문(文: 무늬)이 있다고 전제했다. 글[書]과 시(詩)도 원래 문은 아니지만 말을 내어 마디를 이루면 문이 그 안에 있다고 했다. 따라서 문장(文章)이란 시서(詩書)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여기까지 보면 그의 문학관은 천문(天文), 지문(地文), 인문(人文)을 유비시켜 이해하는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시서의 문장은 사람과 마음이 작용한다는 데 크게 다른 점이 있다고 차별화했다. 무형의 인식을 포착하여 천지에 참여하고 귀신을 울리고 만상을 포함하니, 색깔과 소리, 기세와 울조, 번짐과 응수 같은 갖가지 신묘함이 생겨난다고 했다.

구체적인 문장법으로는 시경의 ‘홍·부·비’를 글에도 적용시켰다. 홍과 부는 문장가의 정법(正法)이요, 비는 문장가의 기법(奇法)으로 설명했다. 이 둘은 상호보완적이지만, 비법(比法)이 점차 커지면서 문장이 더욱 성하게 됐다고 했

46) 崔晚成, <南柯錄序> 《南柯錄》, <客難渠城子曰>: “文以其實爲貴, 則文者實之賓也. 今子之縱橫數千萬言, 無非架空說去, 則空言無實, 孰甚於此? 且書之傳于世甚難, 有其言而無德可稱, 則君子不與之, 而僭竊目之, 況子之言, 無其實, 德無可稱者乎! 有之不如無之, 盍付諸水火, 息後人之無故之謗也.”>

47) 최만성은 서문 끝에 자신의 명의를 ‘竹臺書 漆城子’라 밝혔다. 이는 ‘筆墨’을 상징하는 자신의 필명이거나 우연적 색채의 아호인데, 전문 소설 작가임을 자칭한 명명법이라 여겨진다.

다. 그 예로서 장자나 굴원의 작품, 한유와 유종원의 작품 등을 들었다. 그것들은 가공의 시공간에서 달리고 신화의 세계에서 다투는 걸작이지만, 김성탄의 <수호> <서유> <서유기> 등에 비하면 성 아래에서 항복해야 할 지경이라 평했다. 김성탄은 문장의 규칙을 일일이 쪼개내어 소설의 국면을 별도로 세웠으니 비법(比法)에서 묘리를 얻었다고 극찬했다.

여기서 거론한 장자와 굴원, 한유와 유종원의 작품들은 거개가 우언이거나 우언적 색채를 띤 것들이다. 그 계통을 이어 김성탄의 소설 걸작이 생겨났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꿈나라[夢國]를 별도로 열어 세상에서 득의하지 못한 포부를 편다고 했다. 물론 <남가록>이 전적으로 우언계소설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인물구성이나 명명법에서 서사 진행의 과정과 결과를 암시하는 수법을 활용하고 당대인이 상상 가능한 모든 차원의 세계를 활동 공간으로 확장했다. 우의적 명명과 가상 공간의 설정이라 할 수 있다.⁴⁸⁾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제시한 소설허구론이 우언의 언어관으로부터 도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의하면 문학은 결코 ‘실상의 손님’, 즉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객체가 아니라 그 스스로 가상을 실험하고 이상을 꿈꾸면서 실상을 모의하는 독립왕국이다.

V. 맺음말

본고는 이제까지 우언글쓰기의 언어관으로서 ‘명실론’이 논쟁의 핵심에 놓여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요약하자면 명실상부의 개념규정적 언어관, 실상 위주의 개별적 언어관, 명분과 도리의 관계를 따지는 출처관, 개성적 실상을 표현하기 위한 문장론 등의 사례를 거론했다. 그 논의의 과정을 간단히 보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기로 한다.

명실론은 공자의 ‘정명론’에서 유래하고 장자의 ‘명자실지빈’을 말하는 우언에서 촉발됐다. 그 이후 순자는 정명론을 발전시켜 통치자의 ‘명분 제정’(制名)을 주장하고, 반대로 열자는 이름을 ‘명리’의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실상과는

48) 조용호(2002: 85) 참조. 단 후자의 특성을 근대적 의미의 ‘환상소설’의 선구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위라고 규정했다. 이 둘은 양 극단으로 명실론을 끌고 나갔던 셈이다. 이에 비해 맹자는 《좌전》의 한 대목을 끌어다가 자신의 거취 상황에다 적용하면서 명분과 도리의 상보적 관계로 해석했다. 또한 유종원은 이를 이어 지식인의 출처 문제를 두고 맹자와 유사한 원칙론을 내세웠지만, 직분을 앞세우면서 도리를 저버리거나 도리를 지킨다고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상의 전범과 변용은 한국의 사례를 살피는 데 비교 준거가 된다. 몇 사례를 아래와 같이 검토했다.

이규보는 유종원의 글을 비판하면서 직분과 도리를 지키는 데 있어 엄연히 선후 관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적어도 일반적인 지식인은 자기 직분을 통하지 않고는 도리를 지키는 데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출사를 위해 달리 기댈 것이 없었던 지식인으로서 명분 획득이 선결과제임을 적극적으로 역설한 셈이다. 이상적 도리에 비해 도구적 개념을 강조한 이러한 태도는 문학의 구실을 다면적으로 설정하고, 문제를 가상적으로 토의하는 그의 우언적 작품에 작용했다고 본다. 이에 비해 조선후기를 시작하는 시대에서 이민성은 같은 주제를 전혀 다른 식으로 풀었다. 명분을 밝히는 일은 직임의 한계를 규정하고 분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 이해했다. 명실론을 공자의 정명론으로 회귀시키는 관점이다.

한편 유몽인, 홍대용, 박지원은 조선후기의 근대 이행기적 특성을 반영하는 명실론을 전개했다. 유몽인은 이름으로 규정되는 고정관념을 깨고 실상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명성에 겁을 내고 실상에는 어두워서 명실이 어긋나는 사례를 풍자적으로, 우언적으로 포착한 작품을 산출해내기도 했다. 또 홍대용은 허와 실이 서로를 기다려 온전히 된다는 ‘허허실실’의 우언론을 펴려냈다. 우언은 허와 실을 상보적으로 연결시키는 언어 전략임을 암시한 셈이다. 또 박지원은 옛것을 본받되 창신의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발상은 우언글쓰기에 적용되는 반모방의 원리로 설명된다. 이들은 모두 명실이 어긋나는 시대를 살면서 오히려 이름의 규정성을 풀어버리고 그 대신에 가상이나 허구를 통해 실상의 다면성을 포착하려고 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 <명자실지빈>과 <남가록서>는 우언 작품이나 작품의 서문을 통해 명실론을 문제삼았다. 전자는 장자의 우언을 소재로 끌어들이면서, 허유는 명성만을 탐냈고 요순같은 성인은 오히려 이름을 구하지 않는 거룩한 실상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중세적 명분이 깨어져 가는 시대의 ‘공적인 언어’(名)를 불신하고 그 대신에 내면적 실천의 ‘개별화된 언어’(實)를 추구해가는 모습의 언어관을 표시했다고 여겨진다. 후자는 ‘글이 실상의 손님’이라는 명제를 완강히 부정했다. 문장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가상을 실험하고 이상을 꿈꾸는 독립왕국이라고 역설했다. 우언적 전통으로부터 소설허구론을 도출했다.

이상의 논의는 몇몇 고전과 후대 작품을 선별하여 사례별로 기술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명실론 자체의 전개, 우언글쓰기와의 접점 등은 이론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또 19세기 이후의 한문 장편소설 중에서 허구론을 우언의 전통과 관련시켜 언급한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상호 연관시켜 다루는 작업은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 우언글쓰기, 명실론(名實論), 정명론(正名論), 명실상수(名實相須), 명자실지빈(名者實之賓), 공식적 언어(名)과 개별적 언어(實), 우언의 가상론과 소설허구론.

참고 문헌

- 박희병(1995), <최척전>, 《한국한문소설》, 한샘출판사.
- 박희병(1983), <이규보의 도가사상>, 《국문학과 도교》, 한국고전문학회.
- 손영식(1989), <공자의 정명론과 노자의 무명론의 비교>, 《철학》 31집, 한국철학회.
- 신익철(1998), 《유몽인 문학 연구》, 보고서.
- 양승민(2000), <‘최척전’의 창작동인과 소통과정>, 《고소설연구》 제9집, 한국고소설학회.

윤주필(1993), 〈도가담론의 반모방성과 우언소설의 근대의식〉, 《국문학과
도교》, 한국고전문학회.

윤주필(1999), 《한국의 방외인문학》, 집문당.

윤주필(2001), 〈우언글쓰기의 원리와 적용자료의 범위 연구〉, 《한국한문학
연구》 28집.

윤주필(2002a), 〈동아시아 문인관료의 처세관과 우언계소설〉, 《한국학연구
》, 태학사.

윤주필(2002b), 〈《강촌유고 초사집》의 우언작품 탐색〉, 《국문학논집》 18
집,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이가원(1985), 국역 열하일기(1), 민족문화추진회.

이지호(1996), 〈글쓰기의 두 가지 방식 -주역과 춘추의 경우〉, 《선청어문》
24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조동일(1996), 《한국의 문학과 철학사》, 지식산업사.

조동일(1998), 《제2판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조용호(2001), 〈‘남가록’ 연구〉, 제56차 정기학술대회 요지집, 한국고소설학회.

최진석(2002),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소나무

허원기(2001), 〈천군소설의 심성론적 의미〉, 《고소설연구》 11집, 한국고소
설학회.

加地伸行 지음/ 윤무학 옮김(1998), 《중국인의 논리학》, 법인문화사.

우노세이이찌 편/ 김진욱 옮김(1986), 《중국의 사상》, 열음사.

侯外廬·趙紀彬·杜國庠(1992), 《中國思想通史》 1권, 北京: 人民出版社.

姜椿芳·梅益 總編, 《中國大百科全書(哲學篇)》 CD.(1999), 北京: 中國大百科全
書出版社.

※ 이 논문은 2002년 10월 31일 투고 완료되어 2002년 11월 22일까지 심사위원
이 심사하고 2002년 12월 6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
정된 논문임.